

화가 4명 '따로 또 같이' 작업하고 토론하고



입주작가 캐리커처 문패



광주 예술의 거리 4층 건물 '아티스트 하우스'에 작업실을 마련한 최재영, 김선미, 정해영, 한승희 작가 (왼쪽부터)

광주 공동 '예술의 거리'에 등장한 '아티스트 하우스'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를 걷다 흥미로운 간판을 발견했다. '아티스트 하우스'다. 건물의 문패 역할을 하는 건 작가들의 캐리커처였다. 화가 4명이 건물 3개층을 나눠쓰고 지하는 그림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꿈을 펼치는 공간이다. 1층은 작가들에게 필요한 재료를 파는 덕성필방, 2층엔 작은 갤러리도 있다. 진짜 '예술 빌딩'이다.

예술의 거리에 작업실을 갖고 있는 작가들은 많지만 이처럼 건물 전체에 작가들이 입주해 있는 건 드문 경우다.

캐리커처의 주인공은 최재영(56), 정해영(51), 한승희(44), 김선미(38)씨로 김 작가가 동료들의 얼굴을 그렸다. 작품 세계도, 연령대도 다양한 네 사람은 '따로 또 같이' 작업하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며 즐거운 일을 도모중이다.

타춤패같은 정 작가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미술학원을 운영했던 정 작가는 20여년 운영하던 학원을 접고 전업작가가 됐다. 학원 공간을 리노베이션해 작업실로 만들고 옆에는 '정해영갤러리'를 열었다. 최 작가는 4년 전 입주했다.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이 사용하던 곳이었다. 김 작가와 한 작가는 4개월 전 '예술의 거리'에 입주했다.

"지금 너무 행복해요. 늘 생명이 먼져였던 삶이라 학원을 계속 붙들고 있었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죠. 물론 지금도 다른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림에 몰두하는 요즘이 너무 좋습니다."(정해영)

정 작가는 '행복한 순간'에 '너무 멋진 두분의 작가'가 합류했다고 말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작가를 끌어들이는 건 최 작가다.

"봉선동을 떠나 예술의 거리에서 작업하고 있어

최재영·정해영·한승희·김선미

4층 건물 3개층 나눠쓰고

지하엔 아마추어 화가 작업실

"예술의 거리 아트 플랫폼 기대"

요. 예술의 거리에 많은 사업비는 투입이 되는데 활성화 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예술의 거리가 관련 정보도 풍성하고 장점도 많은 곳이지만요. 예술의 거리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봤죠. 예술의 거리에 작업실이 있다고 하면 오고가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 작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극이 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최재영)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작업을 해온 한 작가와 김작가는 예술의 거리에 입성하며 작업의 강도가 높아졌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는 '예술의 거리'에 작업실을 갖는 게 로망이었어요. 학원에서 작업하다 보니 늘 아쉬웠는데 집중도있게 작업할 수 있어 좋아요. 작가들끼리 교류도 할 수 있구요."(김선미) 이들은 매주 수요일 미팅을 갖는다. 한 작가와 김 작가가 함께 쓰는 4층 야외공간에는 탁자와 의자도 가져다 두었다. 네 사람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이어지고 아이디어도 나온다.

"공동된 관심사가 있다 보니 네명에서 너무 이야기가 잘 통해요. 각자의 작업 이야기, 문화계 이야

기,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술의 거리를 좀 더 활기차게 만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픈 스튜디오도 하고 작업현장도 보여주자. 물감도 흘트려놓고(웃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예술의 거리 발전 로드맵도 그려보고 재미있어요"(최재영)

"이곳이 예술의 거리의 아트 플랫폼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적인 일을 기폭하고 도모하는 장이었으면 해요. 무엇보다 예술가를 꾸꾸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정해영)

우선 오는 11월 2일 광주시 동구청이 주관하는 '미술관 오딧세이' 행사에 참여해 미술, 국악, 체험, 토크가 어우러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김에 '예술의 거리 작가회'도 만들었다. 화가, 공예가 등 순수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20여명이 모였다. 오경탁·박지택 선생이 고문을, 이창환·최향 선생이 자문위원을 맡았고 회장은 최재영 작가다. 두 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기로 한 예술의 거리 작가회는 일단 오는 18일 열리는 종장축제에서 대형 그림을 그리는 합동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하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10여명의 회원들이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감성을 받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그림을 그린다. 컬러 있는 그림들에선 그들의 열정이 묻어난다. 덕성필방은 건물 주인 김종중씨가 운영하고 있다.

"작가 작업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술을 좋아 하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다. 아트하우스는 작업실도 오픈해 거리감을 줄일 예정이다.

최근엔 최 작가에게 예술의 거리에 '좋은 곳' 있으면 알려달라며 작업실 공간을 문의하는 이들도 늘었다. 작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예술의 거리의 멋진 풍경이 기대된다.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청사 장미공원에 정윤태 조각작품 설치

광주시청사 장미공원에 가면 조각가 정윤태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조선대 미술대 학장을 역임한 정윤태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명예관장의 조각작품을 장미공원에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작품은 화강암으로 제작한 '함께해요, 더 나은 미래'다. 광주시의 시정 캐치프레이즈인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표현한 작품으로 시민들이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돼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제작했다. 정 작가는 광주시에 작품 기증 의사를 밝혔고, 시립미술관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품을 기증받았다.

정 작가는 지난해 9월 남부대학교 캠퍼스에 '정윤태 조각공원'을 조성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한·중 우리글 서예 교류전

12~18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제 19회 한·중 우리글 서예 교류전'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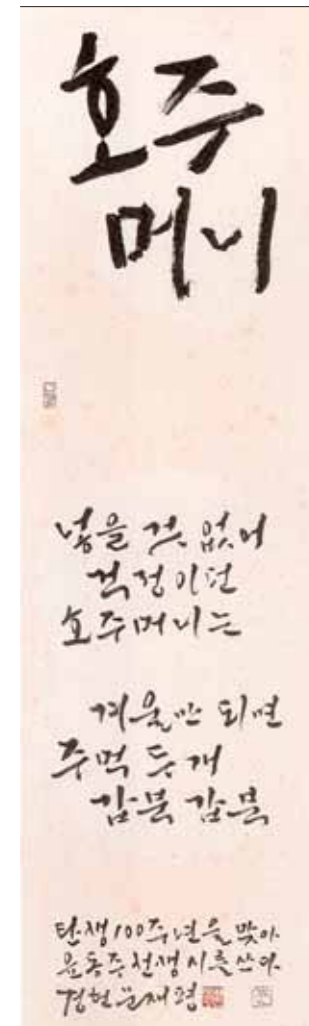
지난 1997년부터 교류를 이어온 무등한글서예연구회(회장 문재평)와 명동서예시랑모임(이사장 서영근)이 함께 마련한 전시로 작품을 출품한 40여명의 회원들은 모두 윤동주의 시를 소재로 글씨를 썼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를 주제로 잡은 이번 전시에서 모임의 고문인 이돈홍 선생은 '내일은 없다'를, 김용석 작가는 '굴뚝'을 선보인다.

그밖에 곽창복·김명숙·김천식·나춘홍·윤기운·정민규·권영원·김용구·송태운·이명숙·이형재·홍광웅씨 등 회원들은 '새로운 길', '서시', '자화상', '눈 감고 간다', '호주머니', '해바라기 얼굴' 등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다양한 한글 서체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광주 전시 전에는 지난 8월12일~15일까지 중국 연길시 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중국 전시회를 열었다. 오픈 행사는 12일 오후 6시 열린다. 문의 062-222-80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재평 작 '호주머니'

광주비엔날레 지역작가 대상 '포트폴리오리뷰 프로그램'

(재)광주비엔날레가 광주·전남 출신 또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대상의 '2017포트폴리오리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0여년 간 축적한 전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작가들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고자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리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광주·전남 출신이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는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장르의 제한은 없다.

큐레이터와 비평가로 초청해 작품과 작가에 대한 심도 깊은 비평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10여명의 작가 작품 성향에 따라 소그룹별로 나눠 해당 전문가와의 매칭 프로그램이 그룹별로 2주에 한번씩 총 5회 제공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소정 양식의 지원서, 최근 활동부터 기업인 작가 약력, 작품 이미지 20컷 이내의 포트폴리오 등이다. 심사발표는 오는 20일이다. 문의 062-608-43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이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 100,000 / 디럭스룸 ₩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